

한의사가 WBA 심판으로 참가

“美선 연방판사도 복싱 주심”

한의사 이민영씨

한의사인 이민영(李敏永·44)씨가 11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세계복싱협회(WBA) 슈퍼플라이급 세계타이틀전에서 부심으로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려오 가메즈(베네수엘라)와 고바야시 세레스(일본)의 경기. 이씨는 “평소 때 라운드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경

이씨는 경희대 재학시절 권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권투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이씨는 지난 82년 해비급 세계 타이틀전 TV 중계를 보면서, 당시 주심이 미국 연방 판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직 출신들이 주·부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심판이 되기 위해 나섰다.

이씨는 “심판이 되는 과정이 시험 대신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는 등 ‘도제수입’ 같은 면이 있고, 권투선수 출신만 선호하는 권투위원회의 벽이 높았다”고 말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 98년 WBA 산하에 모두 42개국의 회원국을 거느린 병아시아 복싱협회(PABA)에서 국제 심판자격을 얻어냈다. 지금까지 세계 타이틀전 주심만 15회를 기록했다.

이씨는 “50세 때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타이틀전에서 주심으로 서보는 것이 희망”이라며 “동양인은 그런 큰 대회에 주심을 맡기 어렵지만 도전해보겠다”고 말했다. /글=孫權美기자 jmsn@chosun.com

/사진=金振平기자 jskim@chosun.com



기를 이끌었느냐와 누가 클린 펀치(clean punch)를 많이 날렸느냐를 채점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